

보도해명자료

(13. 6. 12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“미래의 원전 비중 정할 기구에 ‘친원전 인사’ 일색” 기사에 대한 입장 (13.6.12, 경향)

1. 기사내용

- 에너지기본계획의 원전 발전비중을 결정하는 전문가 그룹이 원전지지 인사들 위주로 짜여짐에 따라 원전 확대가 우려됨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

- 원전 발전 비중을 결정하는 전문가 그룹에 친원전 인사 일색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
- 제2차 에너지 기본 원전 WG은 학계, 산업계, 시민사회계 인사 중 해당분야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겸비한 인물로 선정되었음
 - 기술 전문가(에너지경제연구원, 원자력연구원 등), 반원전 단체(환경운동연합 등), 중립적인 학계 인사(경제, 사회, 금융 분야) 등이 주요 구성원임
- 또한, 동 전문가 그룹은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에너지믹스 결정시 예상되는 원전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이며,
 - 특정사안에 대해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, 각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예기본에 반영하기 위한 것임

※ 관련 문의

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문신학 과장(02-2110-5481)